

유명 음식점 결혼식 단 1건·교회 독립된 공간 나눠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혼돈에 빠진 광주·전남

자동문 버튼 누를 때 손 대신 팔꿈치 사용
감염 우려 시민들 외출 기피 도심 곳곳 한산
영화관·식당·쇼핑몰에도 사람 발길 뜰 끊겨

전국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23일 첫날 광주·전남 전역이 공포와 불안감으로 '일시 정지' 상태의 혼돈에 빠졌다.

확진자가 다녀간 주요 시설이 줄줄이 폐쇄되고, 주말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감염을 우려한 시민들의 외출 기피 현상도 뚜렷해져 도심 곳곳이 쓸쓸했다.

23일 점심시간대 출근길 일대. 그나마 집 밖을 나선 시민들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챙겨 쓰고 나왔지만, 문을 열고 닫을 때 조차 손보다는 발을 이용하거나 자동문 버튼을 누를 때도 팔꿈치를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있었다.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대형 음식점인 '드메르웨딩홀'에는 단 한 건의 예식만이 진행됐다.

이 웨딩홀에는 총 4개의 예식홀이 있지만 오후 1시 단 한 건의 예식만이 치러졌

고, 이마저도 입구에서 웨딩업체 직원들이 50명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인원을 통제했다.

200명이 넘게 들어가는 예식홀에 50명이 채 되지 않는 하객들만 참석해, 드넓은 예식홀은 쓸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또 모든 예식장이 예식은 진행했지만 식당은 문을 닫은 채, 하객들에게 담배를 팔아 제공했다.

예식장 관계자는 "코로나19를 피해 미루던 결혼식을 더 이상 미루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치러지고 있다"면서 "많은 하객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거행하면 좋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교회들이 이날 오전 방역 수칙과 집합 제한 조치를 지키며 예배를 진행했다.

오전 10시에 광주시 서구 중앙교회 예배당 안에는 40여 명의 교회 관계자만이 참석한 채 주일예배가 진행됐다.

교회 출입문 곳곳에는 '성도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8월 23일 주일 오전예배를 온라인 영상예배로 드립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온라인 영상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었다.

독립된 공간을 나눠 50인 미만으로 나눠 예배를 하는 교회도 있었다.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광주시 북구 일곡중앙교회는 이날 오전 1부와 2부의 예배를 진행했고, 5개로 나뉜 독립된 공간에서 많게는 50명 미만, 적게는 8명으로 나눠 1부에는 150여명, 2부에는 100여명의 신도들이 교회를 찾았다. 출입구마다 발열체크기와 명부가 비치돼 있고 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손소독제를 사용후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이날 광주시가 점검한 921개 개신교회 가운데 251곳이 온라인과 현장예배를 동시에 운영했으며, 670곳은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했다.

일곡중앙교회 관계자는 "발열체크와 출입명부 작성뿐만 아니라 충분한 공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다"면서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1시 광주시 광산구의 한 대형 웨딩홀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50인 미만의 하객을 입장시킨 채 예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말 북적였던 영화관, 식당, 쇼핑몰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뜰 끊겼다.

지난 14~15일 3만 5897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던 광주지역 영화 관객객은 이번

주말인 21~22일에는 1만 1790명으로 급감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가을철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개인

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학생 잇단 확진에 '화들짝' ... 'n차 감염' 심상찮다

광주·전남 학생 누적 확진 14명 원격수업 전환 등 방역 강화

광주·전남에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이른바 'n차 감염'에 의한 학생 확진자도 늘고 있어 보건·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3일 광주·전남 사·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희시설과 방문형 학습지, 광화문집회, 물놀이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혈육간 접촉에 따른 10대 학생 감염자도 늘고 있다.

지난 2월 광주·전남지역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광주가 279명, 전남이 80명으로 모두 359명

이른 가운데 학생 확진자는 광주가 11명, 전남이 3명으로 합쳐서 14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1명(광주 9, 전남 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학교는 광주 2명, 전남 1명 등 총 3명이다.

초등생 자매, 초등생 남매, 중학생 오빠와 초등생 여동생 등 형제·자매 시간 감염이 여러 건에 이르고, 감염 경로도 '송파 60번', 유희주점, 할아버지와 식사 등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 광복절 집회와 나주 물놀이시설, 학습지 관련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현직 교사 등 일부 접촉자는 음성과 양성 경계지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대해 24~28일 원격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대입 수험능력시험(12월3일)을 3개월여 앞둔 고3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모든 학교에서는 24~28일 비대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9월11일까지 유치원·초·중·고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특수학교·고등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가 각각 등교한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규모를 당초 3분의 2에서 교육부 제시 기준인 3분의 1로 더 축소해 2학기 학사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기존 전원 등교수업 방침을 유지하도록 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생 감염에 따른 집단 발병 사례는 아직까지 없어 천만다행"이라며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개인은 물론 교내 전역에 걸쳐 방역 수칙을 엄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빛고을전남대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종료 파문

입원 병상 수익 단가 낮게 책정 병원 경영 심각한 어려움 겪어

빛고을전남대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종료로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상황이 심각함을 고려, 보건복지부와 전남대병원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광주시 동구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의 역할을 중단하겠다고 보건복지부와 광주시에 통보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치료·관리의 거점으로, 지역 코로나 환자를 주로 관리하는 병원이다.

전남대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종료 통보는 감염병 치료와 관리의 역할을 반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은 입원 병상 수익 단가가 낮게 책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병원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 전남대병원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지속

및 환자 증가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최종 확정 전이라도 어림셈으로 개산금을 책정해 4월부터 매달 4차례 지급해 왔다.

지급액 산정 방식은 병상당 1일 단가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수를 곱해서 책정됐다. 지난 4월 1차 개산금으로 빛고을 전남대 병원은 11억 8100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병상당 1일 단가가 낮게 책정돼 전체 개산금액이 점차 줄어 병원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전남대 병원 측의 입장이다.

병원 측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병상 수익 단가 개선을 광주시와 복지부에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따라 이번 달 말까지만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한 뒤 종료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는 게 보건당국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차 개산금 지급을 통해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원을, 2차 개산금 지급을 통해 66개 감염병 전담병원에 1308억원을, 3차 개산금 지급에는 87개 의료기관에 총 622억원을 지급했고, 4차에는 202개 의료기관에 총 1073억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서 기아차 관련 취업사기 의혹...경찰 내사

경찰이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의 한 교회 목사로 알려진

A씨가 기아자동차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는 사람들은 A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과 함께 취업을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조사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A씨를 참고인 조사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한 상태는 아니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 상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운암산지점 513-4150 | 매곡지점 572-4150 | 청단지점 576-4150